

2022년 03월 20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7편 14~1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 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14(통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요한삼서 1장 1~15절(신약p.396)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5.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6.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7.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9.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12.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13.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15.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 ◎ 말씀선포 / 선한 일을 본 받으라

성도의 참된 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함을 통해서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본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 가이오이고, 또 한사람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우리도 곧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지 또 우리들 역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천국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사람의 행위를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1. 가이오를 통한 교훈입니다.

- 요한은 가이오에 대하여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네 번이 언급하여 말씀합니다. 본문의 수신자 가이오는 사실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으며, 그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입니다. 성경에서 가이오라는 이름은 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데, 첫째는 고린도의 가이오입니다. 그는 바울이 세례를 주고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자입니다. 둘째는 마게도냐의 가이오로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 데살로니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한 자입니다. 셋째로 더베의 가이오인데 그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한 자입니다. 4세기경의 사도적 관행을 보면 이 세 번째 가이오가 나중에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아 이 더베의 가이오가 오늘 본문의 수신자일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가이오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가이오”에서의 사랑은 “에가페토스”로서 이는 사랑받는 자를 뜻합니다. 요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로 말하는데 원어로는 “흔 에고 아가포 엔 알레데이아”로서 1인칭 대명사 에고를 사용해 “내가 친히 사랑하는 자”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본문에 부사구인 “알레데이아”는 진리 안에서란 뜻으로 결국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형제들로 사랑을 받는 가이오를 요한은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가이오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가이오가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요한을 통해 말씀을 배웠으며,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삶속에 그대로 행하는 가이오의 모습이 사도인 요한을 참으로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후원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5~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대접하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복음 전도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열심을 보인 가이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한 본보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일도 꺼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피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후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 2. 디오드레베를 통한 교훈입니다.

-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해있던 교회의 한 사람으로 그의 이름의 뜻은 “제우스에 의해 양육된 자”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사도의 권위와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악한 말로 헐뜯고 심지어 요한의 지지자들을 몰아냈던 자입니다. 당시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를 “으뜸 되기 좋아하는 자”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자”란 헬라어 “**ἄφιλοπροτυον**”인데, 이 말은 “사랑하는”이란 “**ἄφιλος**”와 “첫째가 되다.”는 “**πρωτα**”의 합성어로 결국 “교회의 지도자, 혹은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교회의 머리됨을 사랑하고, 많은 자들 앞에서 높아짐을 사랑하는 것은 교만이요, 죄입니다. 본문 9~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는 요한의 방문도 기꺼워하지 않았고, 그와 교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디오드레베는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 계속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요한에 대해 부정적 소문을 퍼트리고, 교회를 방문한 형제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접하려는 자까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누군가에 의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에 과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런 교만입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참으로 성도는 다른 사람보다 권위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거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태도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럼으로 교회 사역이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을 제외한 누군가의 명성을 높이거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삼가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행해야 하는 모든 일에 오직 겸손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기꺼이 부인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이오와 같이 선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만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일꾼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20(통350) 나의 죄를 정케 하사

### ◎ 폐 회 / 주기도문